

## 고등과학원을 떠나며...

글\_ 정소연 ·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돌아보면 CMC 연구원들과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던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한데, KIAS를 떠나 공주에서 생활한지도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작년 일년 동안 KIAS CMC 연구원으로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터라,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동고동락(?)했던 CMC 연구원 분들과 행정직원 선생님들과의 이별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KIAS를 떠나 보니 제가 얼마나 훌륭한 환경에서 연구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편미분 방정식 전공자로서 같은 전공의 연구원이 많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대신 다른 연구원들이나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자유롭게 세미나 또는 학회를 열거나, 혹은 출장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던 것은 연구원으로서 최고의 혜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훌륭한 연구 환경 속에서 더 열심히 연구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있는 공주대학교 국제학부는 2012년에 생긴 신설학과입니다. 학생들은 보통 금융공학전공자로서 금융, 경제, 수학, 통계 등을 배우고, 수학전공으로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공주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가 났을 때 수학과가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동료 연구원을 통해서 국제학부에 수학전공 전임을 뽑는다는 공고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학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생활해 본 적이 처음이라 어색한 것도 많지만, 낯선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 하는 성격이라서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5살짜리 조카에게 앞으로 나를 "공주 이모"라고 부르라고 한참을 연습 시켰지만, 제 조카가 이미 동화책을 통해서 공주의 또 다른 뜻을 알고 있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2013년 12월 9일, KIAS에 첫 출근을 하던 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KIAS CMC 에서 어색한 첫날을 보내고 탄 생각 하다가 빗길에 고대 교우회관 언덕길에서 미끄럼틀을 탔던 기억은 지금은 웃음을 줍니다. 고대 교우회관의 정문은 일과 시간이 지나면 밖에서 문을 잠그기 때문에 결국 CMC 토론실에 있는 소파에서 킷라면을 끓여먹으며 잠을 잤었던 재미난 추억들도 있습니다. 제주도로 갔었던 2014년 KIAS 수학과 워크샵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워크샵을 가기 전에는 굳이 가야 하나며 혼자 마구 투덜뻐했는데, KIAS 연구원 중에 제가 제일 재미있게 놀았다고 제주도에 함께 갔던 동료들은 입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KIAS 에서 함께했던 연구원 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